김태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스포츠마케팅 전공
스포츠정책, 스포츠산업에 관심
tdkim21@rig.re.kr

레저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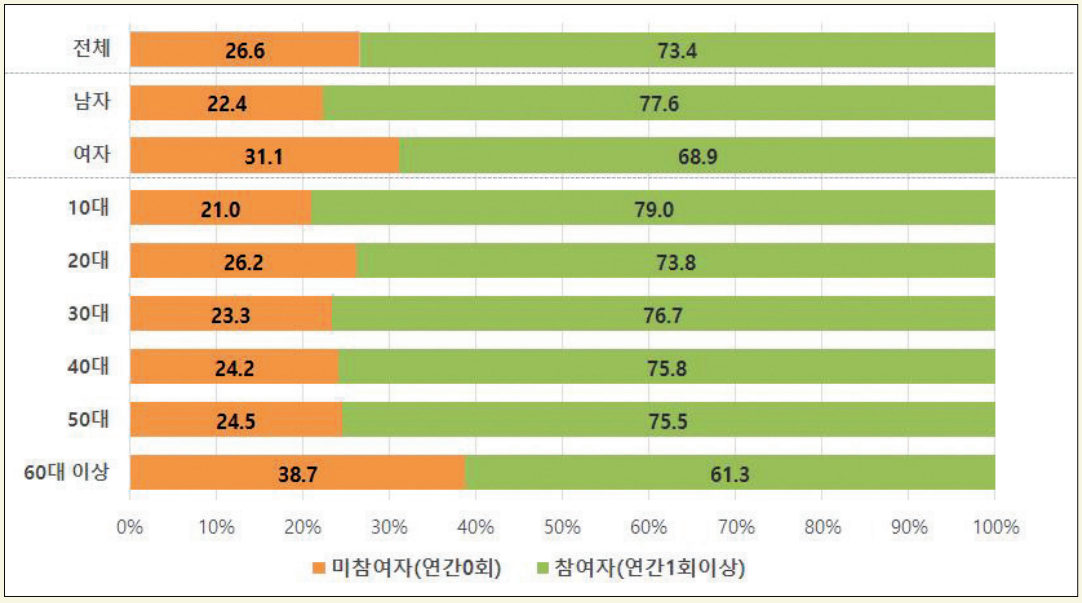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 게임 등의 여가활동)로 즐기는 스포츠 활동으로 육상(번지점프, 짚라인, 스케이트보드, BMX, 인공암벽, 카트 등), 수상(래프팅,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서핑 등), 항공(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드론, 점프슈트 등)으로 구분된다.[1] 산업이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한다.[2]

최근 우리나라 국민 또한 레저스포츠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이라는 뜻을 지닌 '워라밸'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 속에 레저스포츠, 관광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에 수도권 지역 직장인의 레저 · 스포츠, 학원, 여행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헬스클럽 · 테니스 · 수영장 · 볼링장 등의 레저 · 스포츠 소비 증가율이 25~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3]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레저스포츠 참여 경험이 전체 국민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연령별로는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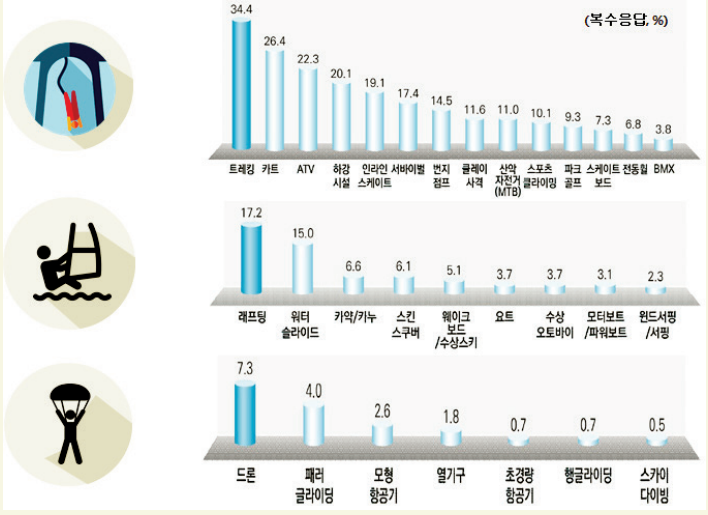
1) 김대희(2018). 레저스포츠진흥 기반구축 및 토론회 자료
2) 두산백과
3) new 1 뉴스 (2019.9.11.). "주52시간, 직장인 근무 13.5분 줄였다. 스포츠 투자 '급증'"

가 7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레저스포츠 경험 여부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7). 레저스포츠실태조사

레저스포츠 참여 종목 유형은 육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수상, 항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상 종목에서는 트레킹(34.4%), 수상은 래프팅(17.2%), 항공은 드론(7.3%) 참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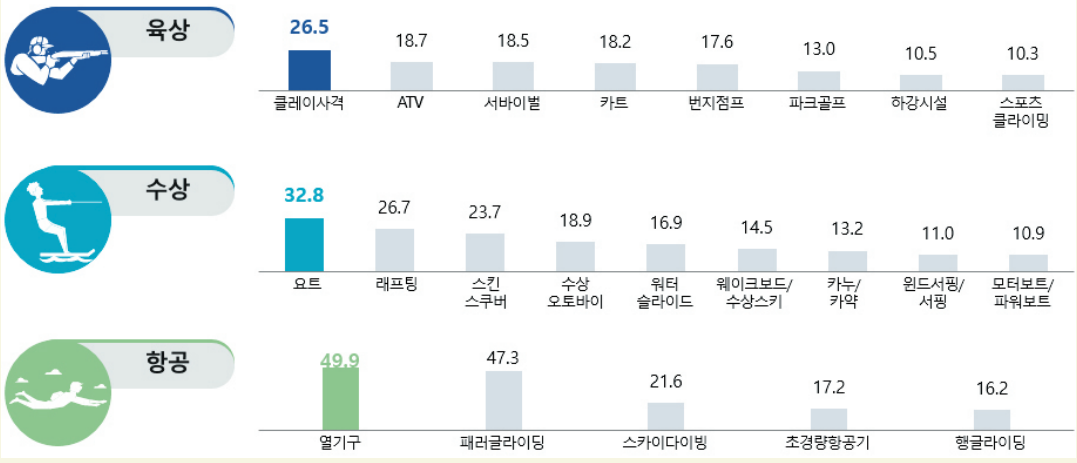
레저스포츠 종목별 참여경험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7). 레저스포츠실태조사

2016년 기준 레저스포츠시설의 연간 이용자는 49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상이 가장 많은 252만 명, 육상 224만 명, 항공 18만 명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연간 이용자 수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7). 레저스포츠실태조사

향후에는 클레이사격(육상), 요트(수상), 열기구(항공) 등의 레저스포츠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다.



향후 이용하고 싶은 레저스포츠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7). 레저스포츠실태조사

레저스포츠 관련 동호회 활동은 14.4%, 가구별 참여 및 관람스포츠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6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 참여비용으로 121.7만 원, 용품 구입 및 렌트비로 36.5만 원, 대회 참여비용 1.6만 원, 관람지출 4.7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참여스포츠 중 대회지출은 23.0%, 관람지출은

47.5% 증가했다.[4)]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스포츠산업 68.4조 원의 0.2%(4,656억 원), 시설업 16.2조 원의 7.0%(1,134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는 3,984백 명의 2.5%인 13,177명, 시설업 종사자는 646백 명의 15.2%(9,845명)를 차지하고 있다.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세분화 하면, 전체 사업체수 2,069개 중 시설업이 64.4%(1,336개소), 유통업이 35.6%(733개소)이며, 종사자는 시설업이 74.7%(9,845명), 유통업이 25.3%(3,332명)이다. 매출액은 전체 4,656억 원 중 시설업이 24.3%(1,134억 원), 유통업이 75.7%(3,523억 원)으로 시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2017년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업 종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개	비중	억	비중	명	비중
시설업	1,336	64.6	1,134	24.3	9,845	74.7
유통업	733	35.4	3,523	75.7	3,332	25.3
합 계	2,069	100.0	4,656	100.0	13,177	100.0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8). 2017년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내부자료

이제 우리에게 레저스포츠산업이란 말은 낯설지가 않다. 그렇다면 레저스포츠산업이 왜 낯설지 않게 되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저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VR, AR, ICT 등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레저스포츠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이유도 한 부문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레저스포츠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첨단기술과 융합된 레저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20년까지 1,500억 달러(한화 약 164조 원)로 추정된다.[5)]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의 레저스포츠 산업규모는 연간 8,870억 원 달러(약 1,000조)로 추정된다. 관련 용품 소비 규모는 1,845억 달러(약 208조 원), 여행 및 관광 7,023억 달러(약 79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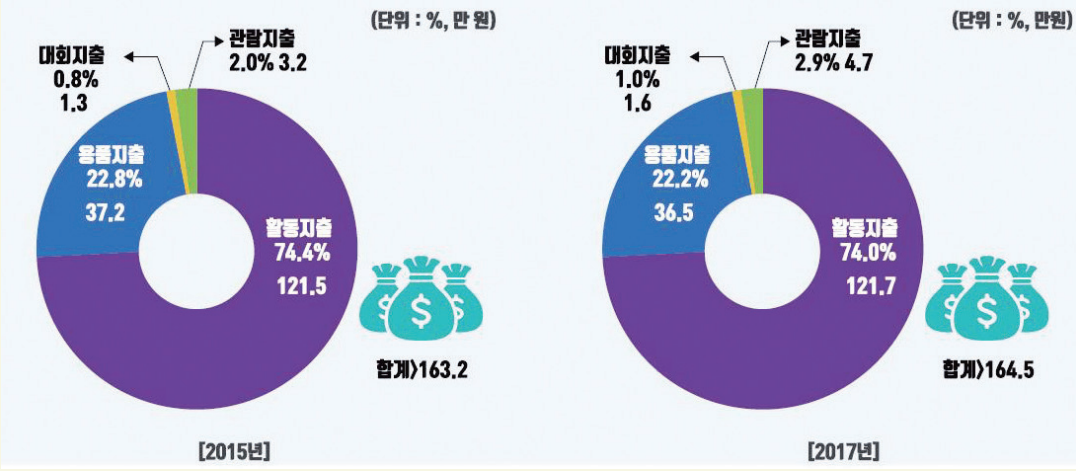
이렇듯 레저스포츠는 소비의 증가와 수요의 다양화에 힘입어 산업적 가치를 높였고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레저스포츠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 확대 및 접근기회 향상 등을 목표로 레저스포츠 전략 2009−2015(Outdoor Recreation Strategy 2009−2015)을 수립하였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Active Victoria(A strategic framework for sport and recreation in Victoria 2017−2021)를 수립하였다. 스코틀랜드 사우스에어셔(South

4)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스포츠산업백서

5)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인용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자료 재인용

6)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8). 내부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스포츠산업백서

Ayrshire)주는 스포츠 및 레저전략 2014/2019(Sport & Leisure Strategy 2014/2019)을 작성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개발 및 운영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레저스포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짊어질 10대의 레저스포츠 참여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탄소와 융복합한 '드론축구'라는 신개념 레저스포츠 아이템이 개발되고 있다. 쇼핑몰에 슬라이드 클라이밍, 짚코스터, 몬스터슬라이드 등의 레저스포츠를 접목시킨 스포츠몬스터 하남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95억 원, 스포츠몬스터 고양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등 기존에 자연에서 즐기던 레저스포츠 활동이 실내, VR, AR, ICT 등과 융합되고 있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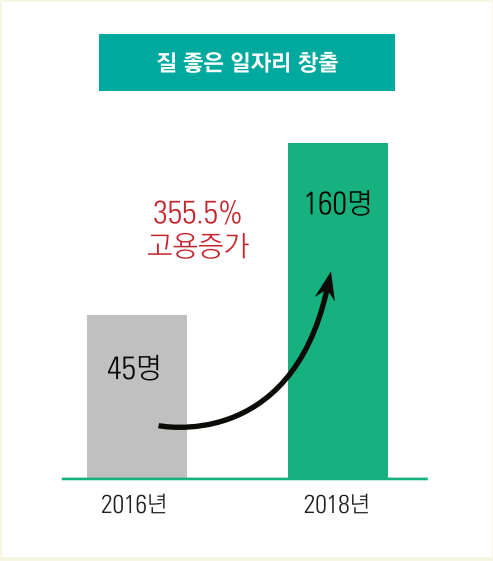
레저스포츠산업은 일자리와 조세수입에도 도움이 크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6년 레저스포츠가 중심이 된 야외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정량화하는 법안인 「야외레크리에이션 일자리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법률(Outdoor Recreation Jobs and Economic Act), REC법」을 제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의 레저스포츠 관련 소비지출로 인해 760만 명의 일자리 와 1,250억 달러(약 141조 원)의 조세수입을 창출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7] 조세수입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금융서비스 및 보험산업(9,21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의약품 산업(4,660억 달러)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4,650억 달러)보다는 많다.[8]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스포츠몬스터의 경우 평당 월평균 매출액이 롯데월드(424,000원)와 에버랜드(73,00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861,500원으로 나타났고, 일자리는 2016년

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8). 내부자료

8) Outdoor Industry Association, 2017을 인용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자료

45명에서 2018년 355.5%가 증가한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저스포츠는 도시브랜드 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굴뚝 없는 미래산업'이다. 레저스포츠산업은 이제 자연에서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벗어나 비즈니스 원천이 되고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레저스포츠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위피크 자료